



마음열기

아래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두 그룹의 결과가 어떻게 서로 나누어 보라.

- 사랑에 홀딱 빠진 두 남녀가 있다. 둘은 외모가 출중했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취미도 비슷하다, 매사에 공통점이 많고 서로 잘 통한다. 돈도 많아서 그들의 데이트는 항상 럭셔리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품이다.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 재능이 특출하고 카리스마도 넘친다. 책임감도 강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하지가 않다. 모든 것을 할 것 같이 믿음직스럽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품이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 아주 영적인 목회자가 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매번 감동을 받는다. 그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면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아야만 한다.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품이다. 이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할까?

🗉 과거에 당신을 어렵게 했다거나, 현재 당신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어려워했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나눔

1. 아래 질문들에 대해 성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성품”이란 무엇인가요?

🗉 내 성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가 바꾸고 싶은 성품이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누군가의 성품 때문에 감동받거나 존경했던 경험이 있나요?

📖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만의 성품 습관은 무엇인가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베드로후서 1:5-9(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이제껏 우리가 받은 초청 가운데 최고의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전해 줄 멋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이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니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애,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 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기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최악된 옛 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선물을 어떤 것이라고 소개하나요?

📖 베드로는 위에 소개한 우리가 받은 선물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이러한 선물들이 자라났을 때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내 삶과 믿음 위에 선한 성품,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 사랑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내 안에 성장해야 할 성품이나 영적 자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결단

“당신의 성품은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한 겉모습이나 순간적인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선택, 심지어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 모두가 우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이나 환경에서 찾지만, 진정한 문제는 우리 자신의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은 착함이나 친절, 배려, 도덕성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과 태도이며, 하나님의 옳고 그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품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 타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이러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경험입니다.

성품은 또한 보답이 없어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보상을 기대하지만, 성품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섭니다. 성품은 사랑과 선함을 전할 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속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성품은 인간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결과이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기준으로 살고, 타인을 사랑하며 신뢰할 때, 우리는 성품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관계와 공동체까지 건강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품을 기억하며 고민해 봅시다.

보답이 없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한 적이 있었는가?

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기도